



## 서산문화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서산의 숨결* | 비매품(통권 제319호)

발행일 2010년 5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남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

제 319호

2010.5. 10

# 스산의 숨결

서산문화원보(비매품) | 월간 스산의 숨결 | 정기간행물 등록 총남 라 1092(1996. 5. 9)

OPEN THE HOPEFUL FUTURE OF SEOSAN!



서산문화원



# Contents

- 03 사랑의 달, 5월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04 19世紀 海美 地方에서의 천주교 信奉 (조 광 / 고려대학교 교수)
- 08 5월의 표준영정 (강감찬(姜邯贊))
- 10 사월 초파일이란?
- 13 청소년 문학제 초등부 최우수상 수상작
- 14 왕양명의 『전습록(傳習錄)』 (문성환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16 리분공예 (강영미 / 리분공예 강사)
- 19 귀농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 (송기선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전략사업팀)
- 22 서산 현대문학의 요람-동인지
- 24 논산문화원이 소개하는 명소 (박응진 / 논산문화원장)
- 26 국악당
- 28 신나는 전통문화나들이 (김명화)
- 30 법정스님을 기리며... (윤병석)
- 32 문화원소식



## Cover Story



표지디자인\_강영미의 리분공예 '꽃바구니'

바느질만 할 수 있다면 다양한 생활소품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공예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리분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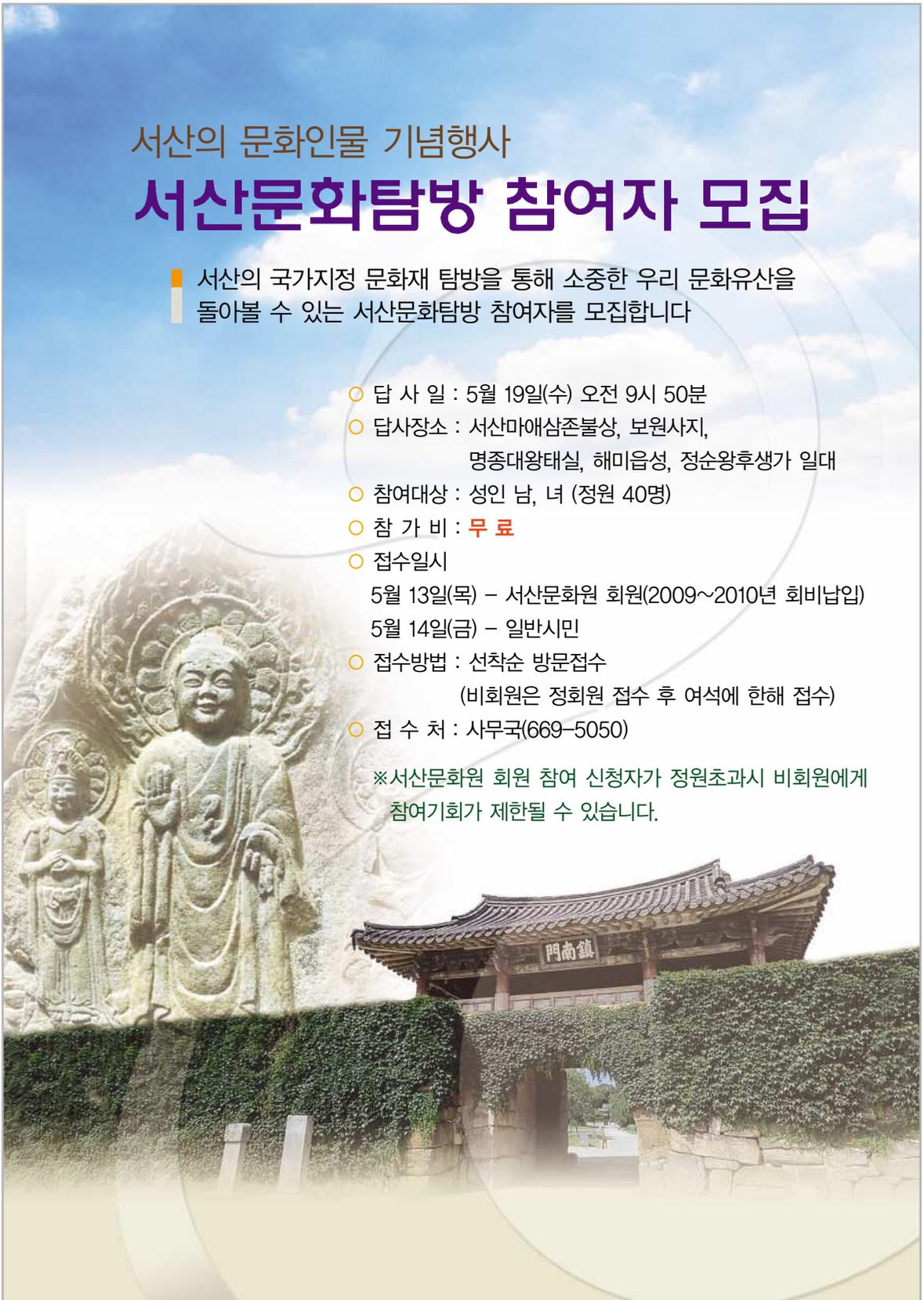
서산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 서산문화탐방 참여자 모집

서산의 국가지정 문화재 탐방을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서산문화탐방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답 사 일 : 5월 19일(수) 오전 9시 50분
- 답사장소 :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명종대왕태실, 해미읍성, 정순왕후생가 일대
- 참여대상 : 성인 남, 녀 (정원 40명)
- 참 가 비 : **무 료**
- 접수일시  
5월 13일(목) - 서산문화원 회원(2009~2010년 회비납입)  
5월 14일(금) - 일반시민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비회원은 정회원 접수 후 여석에 한해 접수)
- 접 수 처 : 사무국(669-5050)

※서산문화원 회원 참여 신청자가 정원초과시 비회원에게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랑의 달, 5월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명명되어오고 있다. 가정에 관한 기념일이 두드러진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세계 가정의 날 또는 입양의 날도 5월 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가정의 날이라는 말은 어쩐지 딱딱하고 틀에 박힌 기계화된 느낌이 들어서 나는 사랑의 달로 이름하고 싶다. 정과 사랑이 교류하고 영혼이 함께하는 사랑으로 얘기하고 싶다.

광적인 교육열풍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린이들을 또는 청소년들을 어디로 몰고 있는가? 가정 속에 매여 있어 자유가 상실된 현실 속에서 기계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나 끊임없이 흐르는 썩지 않는 샘물처럼 신선하며 생명력으로 펄펄 뛰며 매일매일 새롭게 빛나는 태양처럼 찬란해야하거늘 젊음의 참다운 행복과 권리마저도 잃어버린 게 작금의 실태라 하겠다.

좋은 가정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속에서 가족 구성체가 결속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가족의 우애는 절대적 복종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기성 세대들도 이제는 보수적 가정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겠다.

인간을 상업적 기계로 만들지 않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요구되며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문화를 꿈꾼다면 허망한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학교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기쁘고 즐거워야하며 직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며 집에 있는 식구들은 밖에 나가 있으므로 가족에게 애착을 느껴야 되는 가정, 서로 많은 대화로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잘못을 상처받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환경, 그 속에서 꿈이 피어나고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사람의 감성을 비옥하게 하고 정신세계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즉 행복을 창조해내는 원동력이 사랑이며 가족들의 돈독한 사랑은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본다.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에게 먼 미래로 창창하게 뻗어나가는데 필요한 가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주는 것 역시 가족들의 사랑이라고 본다. 부실한 가정 속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처럼 힘을 얻는 부분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한 번 더 사랑과 격려로서 정을 북돋우고 부부의 사랑은 확인과 점검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마음껏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은 꽃과 나무같이 보고 즐기지만 하면 시들고 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씩없이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연녹색 녹음이 너무 아름다워 가슴이 설레는 계절이다. 이런 좋은 계절에 어찌 누군들 미워할 수 있겠나!

# 19世紀 海美 地方에서의 천주교 信俸

조 광  
(고려대학교 교수)

## 차 례

1. 머리말
2. 海美地方에의 천주교 전파와 박해
3. 丙寅敎難期의 海美
4. 맺음말

우리는 이상에서 확인한 『성책』의 자료와 <표 2>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1868년 당시 해미에서의 천주교 박해상을 좀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치명일기』 『증언록』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표 2>를 통해서는 1868년에 해미에서 순교한 사람은 모두 15명이고(4월 8명, 5월 4명, 월 미상 3명) 여기에 농바우 교우 26명이 1868년 4월에 순교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성책』에는 1868년(同治 7년, 高宗 5년) 4월에 기찰포교 엄덕영(嚴德永), 이희운(李熙云), 최영석(崔永石) 등에 의해 체포된 신도 34명이 해미현(海美縣)에서 참수되었고, 동년 5월에는 기찰포교 엄덕영, 이희운, 이승호(李承浩), 김만성(金萬成), 장진호(張鎭浩) 등이 체포한 35명의 신도들이 해미진(海美鎭)에서 참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성책』을 통해 해미에서 천주교도들의 처형을 주관하고 있던 곳이 해미현과 해미진 두 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의 경우 1868년 4월에 순교한 사람으로는 농바우 교우 26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한 34명으로까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34명 가운데 『성책』에 기재된 인물과 확실히 일치되는 사례는 방순기(方巡己, 표 2 No. 20)하나 뿐이며, 『성책』에는 면천(沔川)에서 체포되어 온 것으로 기재된 조소사(趙召史)가 <표 2>에 나오는 농바우 출신 조베로니카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성책』에 수록되어 있는 나머지 32명은 <표 2>와는 대부분 중복되지 않는 인물로 생각된다. 또한 1868년 4월 농바우에서 체포되어 참수 당한 26명의 신도들은 면천에서 농바우라는 지명을 확인하게 된다면, 구체적 이름들이 『성책』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한편, 1868년 5월의 경우에는 <표 2>에서는 단지 4명의 순교자만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성책』에는 35명의 참수자가 기재되어 있다. <표 2>와 『성책』을 대조해보면 『성책』에 홍주(洪州) 출신으로 기록된 문소사(文召史)는 <표 2> 문마리아와 순교일(殉教日)이 일치됨을 볼 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성책』에 덕산(德山)출신으로 나오는 방소사(方召史)는 <표 2>에 덕산 신프린에 살다가 덕산 황모실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방마리아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또한 『성책』에 기재된 홍주 출신 박치운(朴致雲)은 <표 2>에 나오는 홍주 원머리 출신 박요한과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다.

병인교난 때에 체포된 신도들은 대개의 경우 체포된 10여 일을 전후하여 처형되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서는 사형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요 사형사건에 대해서는 삼성추국(三省推鞠)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오판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병인교난 때 사학죄인(邪學罪人)인 천주교인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선참후계(先斬後啓)에 준하여 천주교도들에 대한 처형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의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 체포된 신도들의 경우에도 대개는 옥에 갇힌 지 10여 일을 전후해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32)</sup>

그리고 해미진영에 체포된 신도들 가운데 다수도 이와 같이 단기간 안에 처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수할 경우 죽음에 처해졌지만 김춘겸과 같은 이는 1866년에 체포되었다가 1868

32) 위의 증언록, 정리번호 120.

년에 이르러서야 순교했다.<sup>33)</sup>

해미진영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처형이 성행했다. 우리는 집단처형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그리고 그 처형의 방법과 장소도 다양했다. 해미진영의 순교자 가운데 일부의 신도들은 장독(杖毒)으로 말미암아 해미의 감옥에서 옥사하기도 했다. 또한 교수형이 해미 감옥에서 직접 집행되기도 했다.<sup>35)</sup> 또한 교수형은 해미의 서문 밖에서 집행되기도 했다.<sup>36)</sup>

그리고 1866년에는 5명의 신도들에게 참수형(斬首刑)을 집행하기도 했다.<sup>37)</sup> 신도들에 대한 참수형은 당시의 관행으로 보아 서문 밖에서 집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868년 5월 3일과 5월 23일에는 해미천 가에서 신도들을 생매장하여 죽였다.<sup>38)</sup>

이와 같은 박해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신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 병인교난 기간동안 이곳 해미에서 순교한 사람으로는 <표 2>에 수록된 53명과 『성책』의 4월조에 기재된 34명 중 <표 2>와 중복이 안되는 32명, 그리고 『성책』의 5월조를 통하여 밝혀진 35명의 순교자 가운데 <표 2>와 중복이 안된 32명 합계 117명 정도의 씨명(氏名)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이름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신도들 이외에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을 가능성은 있다. 해미지방 순교자의 숫자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치명일기』의 기록을 통해서도 암시되고 있다. 즉 1866년 해미에서 교수형을 당한 손사중은 다른 신도 30여 인과 함께 교수되어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치명일기』에 5~6인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하다.<sup>39)</sup> 그리고 1868년에 순교한 조유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미 포교에게 잡혀 합 수십여 명이 한가지로 치명하니”하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68년 그와 동시에 순교한 다른 수십여 명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sup>40)</sup>

그리고 1868년 4월 순교한 김춘겸의 경우 “해미로 잡혀와 합 네 사람이 한가지로 치명하니”하고 되어 있으나,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의 순교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sup>41)</sup> 이밖에도 『치명일

33) 『치명일기』 694.

34) 『치명일기』 685, 689, 695~7, 709~713.

35) <표 2>의 No. 14, 18, 23, 26, 28, 29, 30, 31, 35, 41, 42, 52.

36) <표 2>의 No. 3.

37) <표 2>의 No. 1, 6, 7, 39, 40.

38) <표 2>의 No. 17, 24, 25.

39) 『치명일기』 690.

40) 『치명일기』 697.

41) 『치명일기』 694.

기』에는 순교 월일을 각각 달리하여 “다른 교우와 한가지로 치명했다”고 표현된 순교자들이 있는 바,<sup>42)</sup> 이 경우에도 그 동반 순교자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헌을 통해 밝힐 수 있는 117명의 순교자 이외에도 또 다른 순교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여 순교자의 숫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며, 순교자의 숫자를 무한정 늘리려는 시도는 박해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는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미지방의 순교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다수의 순교자들이 남긴 순교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이곳 해미에서 전개된 순교의 주인공들은 거개가 ‘불학 무식한 농투성이’로 지칭되던 사람들이었다. 종전에 이들은 양반관료나 지주에 얽매어 지내며 자신의 인격 자체가 중세 봉건적 질곡 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후 이들은 양반관료나 나라님으로부터도 강제될 수 없는 자신의 양심의 존재를 터득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양심과 신앙은 생명보다도 중요했으므로 이들은 이를 위해 생명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자신의 인격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기도 했으며, 이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려던 노력의 과정에서 자신을 산화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 19세기 조선의 순교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의 일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순교에 대해 이외에도 교회사적 의미를 별도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미지역의 순교자들에 관해서도 그 수적 측면만을 강조하며 더 이상 경탄해서는 아니 되고, 그 질적 의미를 음미해 나가야 한다. 19세기 조선왕조에서 진행된 순교의 주체는 이름 없는 민중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비특권적 민중의 각성은 우리 역사의 위대한 발전을 뜻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각성을 통해 봉건사회의 어둠이 걷혀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순교자의 활동무대였던 해미는 하층민 인민들이 자신의 존귀함을 확인한 장소이며, 새로운 깨달음의 장소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미의 사적지가 갖는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2) 『치명일기』 685, 702.

# 강감찬(姜邯贊)

948(정종 3)~1031(현종 22)

초명은 온천(殷川), 본관은 금천(衿川), 서울 출생, 고려개국공신인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궁진(弓珍)의 아들, 아버지로부터 학문과 무예를 배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김장길의 양아들이 됨.

● 983년(성종 2) 문과(文科)에 장원 예부시랑(禮部侍郎)이 되었다. 1010년(현종 1) 거란 성종(聖宗)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자 조신



(朝臣)들은 항복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반대하고 왕을 피하게 한 뒤 하공진(河拱辰)으로 하여금 적을 설득시키도록 하여 물러

## 고려의 명장(名將)

● 가게 하였다. 그뒤 국자궐주(國子祭酒),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 서경유수(西京留守),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등을 역임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력의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 1018년(현종 9)에 거란의 소배압(蕭排押)이 10만 대군으로 고려에 침공하자, 이듬해 서북면 행영도통사(西北面行營都統使)로 상원수

(上元帥)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흥화진(興化鎭)에서, 강물을 이용하여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 회군(回軍)하는 적을 뛰어난 지략으로 귀주(龜州)에서 크게 격파하고 개선할 때 왕은 영파역(迎派驛)까지 나와 영접을 하였다. 검교태위, 문하시랑동내사문하평 장사, 천수현개국남, 식읍삼백호(檢校太衛門下侍郎同內史門下平掌事天水縣開國男食邑三百戶) 봉해지고 추충협모안국공신(推忠協謨安國功臣)의 호를 받았다.

이듬해 치사(致仕)했다가 1030년(현종 21) 적에 대한 나라의 방비 태세가 허술함을 걱정, 왕에게 청하여 개경을 축성(築城)하고 문하시(門下侍中)이 되었으며, 이듬해 특진, 검교태사시중, 천수군개국후에 봉해졌다.

1031년(현종 22) 84세로 세상을 떠나자, 현종 묘정에 배향되고 수태사 겸 증서령에 추증 시호는 인헌(仁憲)

[文獻] 高麗史, 姜晋哲 : 姜邯贊 等

■ 영정개요 ■

표준영정지정년도: 1974

제작작가 : 월전 장우성

영정크기 : 120 X 210(가로X세로cm표시)

소장지 및 소장인 : 낙성대





## ■ 사월 초파일의 유래

이 날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라 하여 불탄일(佛誕日) 또는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하나,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佛家)에서 하던 축의행사(祝儀行事)였으나 불교가 민중 속에 전파됨에 따라서 불교 의식도 차츰 민속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라는 여러가지 불교 행사가 성했는데,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護國)의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세시행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팔관회(八關會)는 불교행사가 신라의 세시풍속으로 승화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월 초파일은 불도의 행사가 신라의 호국불교로 승화된 이래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민속과 동화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백제와 고구려 본기에는 불도의 행사가 세시의 행사로 거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신라본기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일을 팔관회로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왕성(王城)에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대보름에는 14일, 15일 이틀간을 저녁에는 연등(燃燈)을 하던 풍속이 있었으나 최이(崔怡)가 4월 8일로 옮겨서 하게 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월 초파일은, 불교의 축의행사로 전래되었다가 민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신라의 팔관회, 고려의 연등회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 사월 초파일의 풍속

이 날의 가장 대표적인 풍속은 관등놀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을 관등절, 연등절 또는 등석(燈夕)이라고도 한다. 초파일을 여러 날 앞두고 가정이나 절에서는 여러 가지 등을 만든다. 이 때 가정에서는 가족의 수대로 등을 만든다. 초파일 며칠 전부터 뜰에 등간(燈竿)을 세워 두고 간상(竿上)에 꿩 꼬리털을 꽂고 물들인 비단으로 기를 만들어 다는데, 이를 호기(呼旗)라고 한다. 이 호기에 줄을 매고 그 줄에 등을 매단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등간을 만들지 못하는 집에서는 나뭇가지나 혹은 추녀 끝에 빨래 줄처럼 줄을 매고 그 줄에 등을 매달아 두기도 한다.



그리고 초파일 저녁이 되면 등에 불을 밝힌다. 이 등석 행사는 그 이튿날인 9일에 그치는데, 부유한 집에서는 큰 대를 수십개씩 엮어매어 쓰기도 하고 해와 달의 형상으로 만들어 꽃아서 바람에 따라 굴러 돌게 하기도 하며, 굴러 돌아다니는 등(轉燈)을 매달아서 그 등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마치 탄환이 달아나듯 하기도 한다. 때로는 종이에다 화약을 써서 이것을 노끈이나 또는 새끼줄에 엮어매어 불을 당기면 터져서 꽃불같이 비오듯 하기도 하고, 종이를 용을 만들어 바람에 날려 띄우기도 하며, 또는 인형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엮어 띄워서 요동케 하여 놀기도 한다. 또 옛날 각 상점에서는 등대를 서로 높이 세우려고 고 다투어 승부삼아 만들기도 한다. 등의 모양은 과일, 꽃, 어류 또는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을 본떠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이름만 해도 수박등·마늘등·참외등·연화등·목단등(牧丹燈)·잉어등(鯉魚燈)·거북등·봉등(鳳燈)·계등(鷄燈)·학등(鶴燈)·오리등·일월등(日月燈)·선인등(仙人燈)·칠성등(七星燈)·고등(鼓燈)·누각등(樓閣燈)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등에는 '태평만세(太平萬歲)' '수복(壽福)' 등의 글을 쓰기도 하고, 기마장군상(騎馬將軍像)이나 선인상(仙人像)을 그리기도 한다. 또 화약을 층층으로 새끼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불꽃이 튀면서 퍼지는데, 이러한 놀이로 흥을 돋우기도 하고 때로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줄에 매달아 바람에 흔들리게 하여 놀기도 한다.

그런데 등을 달았을 때 불이 환하게 밝으면 길조로 해석한다.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에는 사월 초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인가와 관청, 저자에서는 모두가 등간(燈竿)을 세운다. 이 등간은 대나무를 연하여 묶고 그 높이는 십여 장(丈)이나 된다. 등간 위에는 비단이나 면포를 잘라서 꽃으며 깃발 밑에는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를 가로 대고 또 갈고리에는 줄을 엮어서 줄의 좌우끝은 땅 위까지 내려오게 한다. 그런 연후 밤이 되면 등에다 불을 켜는데 많이 달 때는 십여 개의 등을 달고 적게 달 때는 3, 4개의 등을 매달아 놓는다. 일반 민가에서는 아이들 식구 수대로 매다는 것이 상례이

다. 그런데 등을 매단 모양이 층층이 연하여 마치 구슬을 꿰맨 모양 같이 보인다. 먼저 줄 한 끝을 꿰어매고 그 다음에는 아랫등의 꼬리편을 매어서 이것을 가만히 잡아 올리면 그 등을 매단 줄의 갈고리까지 한꺼번에 위로 올라간다. 등은 마늘, 외, 꽃잎, 새, 짐승 같은 형상의 것, 또 누대(樓臺)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양각색으로 꾸며져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키는 어렵다.



어린 아이들은 등대 밑에다 깔개를 깔고 누터떡, 소금물에 볶은콩 등을 먹으며 물동이에 바가지를 얹어놓고 돌리면서 바가지를 두드린다. 이 놀이를 수부(水缶) 즉 물장구 놀이라 한다. 중국의 연등회(燃燈會)는 정월 보름에 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4월 8일에 행한다. 이 날의 근원은 불교에서 나왔고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다."

## ■ 사월 초파일의 시절음식

사월 초파일을 전후해 주로 먹는 음식으로는 찐떡(蒸餅)·화전(花煎)·어채(魚菜)·어만두(魚饅頭)·미나리강회 등이 있다. 찐떡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방울같이 빚어서 술에 찐다. 그런 다음에 팔 속에 꿀이나 설탕을 섞어서 방울 속에 넣고, 또 방울 위에는 대추를 붙인다.

화전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그랗게 만들고 진달래꽃을 붙여서 기름에 지지는 것이다. 어채는 생선·국화잎사귀·파·석이버섯·전복·달걀 등을 가늘게 썰어서 섞은 것인데, 여기에 초고추장과 참기름을 쳐서 먹는다. 어만두는 생선을 두껍게 저며 그 조각에 고기를 넣어서 익힌 것이다. 미나리강회는 미나리를 삶아서 파 하나, 마늘 하나를 함께 하여 고추 모양으로 감아서 회를 하는 것인데,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서동초등학교 6학년 4반 하 현 아

## 가뭇 든 아빠 발

아빠의 발은  
언제나 가뭇이다.  
가뭇 속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아빠의 발은  
언제나 가뭇이다.  
비가 오지 않은 땅  
거북이 등처럼

그런 아빠의 발을  
정성스레 닦아주면  
아빠의 발에도 비가 온다.

기나긴 가뭇도  
끝을 낸다.



# 왕양명의 『전습록(傳習錄)』



『전습록(傳習錄)』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왕양명(王陽明, 1472-1528)의 강학(講學)을 기록한 양명학의 교과서다. 사실 우리에게 양명과 양명의 학문은 오랫동안 불온하고 위험한 기호였다. 조선이 500년간 주자만을 정학(正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양명은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주자에 비견되는 유일한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 과거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 텍스트가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데 있다.

『전습록』을 읽다보면 재미있는 경향이 보인다. 그것은 왕양명과 그의 제자들이 일상적인 강학(講學)의 시간 속에서, 철학적인 논변들에서,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서 나란히 유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명학에서도 제자들은 묻고, 스승이 대답한다는 강학의 풍경은 여느 학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양명학단(陽明學團)에서 이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앎과 삶이라는 물음 앞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했던 일종의 지식 공동체였다.

그렇기에 스승의 대답은 지금 자신에게 물음을 던졌던 바로 그 제자의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일대일 맞춤형 문답이다. 스승의 말씀 없이는 앎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스승의 그 말씀은 역으로 제자의 질문을 통해서만 돌아온다. 스승과 제자는 이렇듯 앎과 삶이라는 현장을 구성하는 동시적 상관자들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학문에 관한 동아시아적인 전통의 모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배우고 묻는 것이야말로 배우고 묻는다는 ‘학(學)+문(問)’의 본래 의미이기 때문이다. 학문은 배우고 묻는 과정이지 배움과 물음의 목표가 아니다.

앎과 삶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양명학단의 일화 하나! 1524년, 68세의 동라석(董蘿石)이 53세의 왕양명을 찾아 갔다. 동라석은 교조화된 주자학자들의 지리멸렬함을 비판하며 시사(詩社)를 꾸려 전국을 주유하던 기인(奇人)이었다. 왕양명은 이 범상치 않은 선배의 방문을 극진한 예로 맞이했다. 사실 동라석은 왕양명을 당



시의 그렇고 그런 유학자 부류라고 생각하고 버릇을 고쳐줄 생각이었다. 왕양명과 동라석 사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한 마디 두 마디 말을 쉬게 되면서, 동라석의 말투는 점차 부드럽고 온화해졌다. 마침내 동라석은 진심으로 양명의 말에 감복했다. 토론이 끝났을 때, 동라석은 기어이 자신보다 한 세대 가까이 어린 왕양명의 제자가 되기를 고집했다.

전습(傳習)이란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것(傳)을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익힌다(習)는 뜻이다. 배움과 실천은 이렇게 함께 한다. 배움이란 새의 날개짓처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를 일깨워준 스승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그 말씀들을 곱디곱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몸에 새겨 새로운 형식으로 되바꾸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승의 앵무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또 다른 스승이 되는 것이다.

『전습록』에는 힘든 잡무에 스트레스가 쌓여 돌아버릴 것 같다는 말단 공무원 제자의 불멘 불평이 있고, 자식이 죽어가는 순간에 고민하는 제자도 있고, 스승의 말씀이 미심쩍어 뒤에서 탄소리하는 제자의 모습도 있다. 그때마다 스승은 바로 그 제자에게 말을 건넨다. 그 말씀들은 때론 엄하고, 때론 부드러우며, 때론 유머러스하다. 그리하여 그 배움의 정원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에 함께 놀라고, 두려워하고, 가웃거리고, 깡충거리고, 환호작약하는 밴드 구성원들의 모든 표정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그 모든 살아가는 순간을 자신들의 물음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끄럽게 복닥거리는 사건 사고들이 놓인 현장의 한복판에서 양명의 강학원은 다른 어떤 철학보다도 풍성한 삶의 지혜를 길어올렸다.

그리고 보면 양명의 철학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작동되는 실천적인 교과서다. 왜냐하면 삶은 어느 한 순간도 머뭇거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알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 행하지 않으면 아직 아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지금 이순간 나의 행위가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면, 혹은 어떤 조건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의 행(실천)이 바로 지금 나의 수준이다! 양명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글쓴이 소개

문성환 (文聖煥)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리본공예』

리본공예 강사 강 영 미

어느덧 벌써 가정의 달 5월이다.

길가에는 벚꽃들이 한창 하얀 봉우리를 활짝 피어내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바람에 꽃비를 내려주는 햇볕이 이제는 제법 따가운 5월이다. 여기저기 여인들의 옷맵시에서부터 벌써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더위가 시작되려나 보다.

이맘때면 늘 한참 바느질을 하고 리본을 접어 꽃을 만들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작은 리본을 바느질해서 생화처럼 아름다운 카네이션을 만드느라 손이 정신이 없는 달이다. 어떻게 리본으로 꽃을 만들까 하지만 다양한 바느질 기법으로 아름다운 꽃을 표현할 수 있는 리본은 알 면 알수록 신기하면서 실용적인 공예이다.

리본은 주로 공단, 골지, 오건디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무늬가 있다 해서 프린트된 공단, 골지, 오건디 리본이 있다.

리본은 미리 그 크기를 나누어 놓았는데 그 크기도 다양해서 만드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도로 만드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오고 다양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본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 리본이 쓰이는 곳이 참 많다. 가방이나 옷에 코사지로도 쓰이고 구두위에 장식품으로 쓰이고 예쁜 공주님들 머리위에 살포지 리본이 올려져 있고 리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으로 변신을 한다.

그렇다면 리본공예를 배우는 방법이 어려운 것일까? 아니다. 리본공예의 주인공인 리본은 구입도 쉽고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부재료 또한 누구든 집에 있는 도구이다. 그 간단한 도구란



바늘과 실, 글로건, 펀치 니퍼와 가위, 양면테잎 그리고 리본공예의 주인공 리본이다.

리본공예의 방법이란 리본에 주름을 접는 방법과 도구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맞는 박음질 흠질만 알면 누구든 배워서 다양한 생활소품과 헤어 악세사리를 만들 수 있다. 바느질만 할 수 있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리본으로 예쁘게 카네이션을 만들 수 있다.

또 요즘은 웰빙 바람이 불어서 다양한 공예가 많이 선보이고 있지만 배우려면 그 가격이 만만치 않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리본공예는 한 마(90cm)에서 다양한 아이템이 나오고 기본도구 또한 리본공예를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재료는 누구든 집에 하나쯤 가지고 있는 위의 도구들이면 충분하다.

또 리본은 꼭 리본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쁜 원단이 적당한 길이가 되면 원단으로 리본을 만들어 원단리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어 그대로 원단으로 리본을 만들었다 하여 원단 리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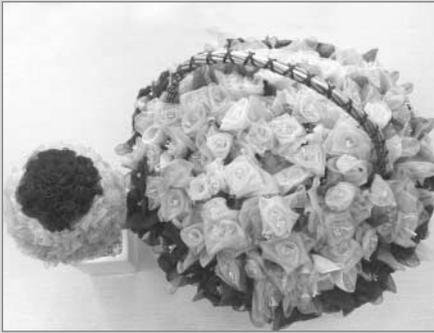
그리고 원단 리본이 있는가 하면 가죽 리본도 있고 세무 리본도 있다. 이렇게 리본은 소재도 다양하고 그 쓰임새도 다양하게 쓰이고 배우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고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다.

요즘은 리본 공예를 알려주는 기관도 많고 작은 소모임 동아리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데 간단한 예로 책을 구입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하여 배울 수도 있다. 재료 또한 구매하는 것이 다른 공예와 달리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렇듯 리본 공예는 다른 공예와 달리 쓰임새도 많고 재료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부담이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아이템으로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리본공예인 것이다.

사람들은 리본으로는 편이나 헤어 액세서리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리본을 접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 리본이 응용이 되고 그 표현의 강도와 쓰임새가 다양해서 리본은 알면 알수록 참으로 다양한 아이템으로 표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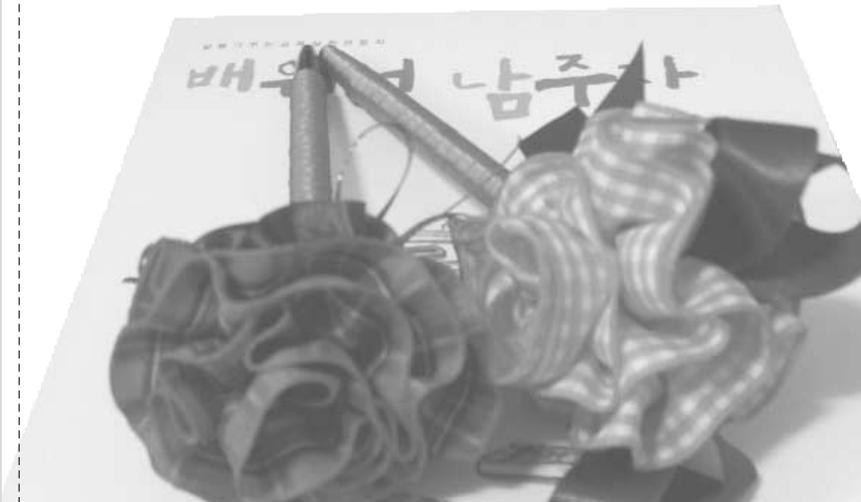
무엇보다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소품과 그 표현의 방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요즘은 딸을 가진 엄마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리본을 배우고 있으며 꼭 딸을 가진 엄마가 아니어도 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리본 공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번만 잘 배워두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리본공예.

색감과 소재 또한 다양하고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도구 또한 어렵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생각만 있다면 누구든 배울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5월 리본 한 장으로 예쁜 꽃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 보는 것은 어떨까?

주는 사람도 뿌듯하고 받는 사람도 그 정성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리본공예를 5월에는 한번쯤 도전해 보자.





## 귀농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송기선 팀장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 가구수는 4,080가구로 2003년 885가구에 비해 무려 4배가 넘게 증가했다. (참고: 2005년 1240가구, 2007년 2,384가구) 가히 귀농의 '붐'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데 대부분의 언론은 귀농가구의 증가를 경제적인 이유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언론은 경기 침체나 실업인구의 증가가 귀농인구를 늘렸다는 분석을 내놓기 일쑤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도 분명 포함되어 있으니 그 분석을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귀농은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우선, 젊은 30~40대의 귀농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은퇴자가 노후를 농촌에서 보내겠다는 단순 거주지의 이전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젊은 인력이 농업으로 전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실업자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농촌이 도시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귀농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농촌은 도시보다 일자리도 넉넉하지 않고, 품삯으로 불리는 인건비도 도시보다 훨씬 싸다. 또한 농사일이 그리 녹록하지도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연간 소득으로 볼 때 도시 근로자보다 못하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농업과 농촌으로 가는 이유는 농업이 갖고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최근에 고학력에 사회적 지위도 높았던 사람이 농업과 농촌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른바 ‘엘리트 귀농창업’이다. 도시 출신 귀농자들은 오랜 도시생활 속에서 농산물의 소비자로 살아왔다. 그런 탓에 소비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으며, 시장지향적 마인드를 갖고 틈새시장을 공략할 줄 아는 경영자의 기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귀농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인 철학이 다양해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대 흐름을 보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돈 벌러 가는 ‘이촌향도’의 흐름이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떠나지만 하니 농촌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급속히 노령화되어 갔다. 그런 농촌에 귀농이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껴 생태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발적 가난’을 택해 ‘개인적인 철학’으로 무장하여 농촌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부터가 아닐까싶다. 도시 물질문명과 소비문화를 거부하는 귀농자들은 자급자족하는 수준에서 생태적인 삶을 지향해 왔다.

귀농의 흐름이 일대 전환기를 맞은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시절이었다. 경기한파와 높은 실업률은 ‘에잇, 시골가서 농사나 짓자’라는 자조섞인 ‘생계형’ 귀농인을 양산했다. 통계에 따르면 IMF당시 6,409가구나 귀농했다고 한다. 이런 탓인지 아직도 젊은 귀농인을 보면 실업자거나 사업에 실패한 ‘낙오자’로 보거나, 최소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있다.

IMF가 10여년 지난 요즘의 귀농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안전 먹거리와 웰빙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삶의 질에 대한 고민도 훨씬 다양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농촌에서 농부로 살아가는 것도 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는 귀농을 생태형, 생계형으로만 분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론 앞서 언급한 ‘농업창업형’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귀농에 대한 흐름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의 동의’,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 ‘귀농지에 대한 신중한 선택’ ‘농기계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 ‘여유 운영자금 확보’ 등을 지적한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귀농하기 전 ‘귀농교육’을 받는 것이다.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농업과 농촌에 자연스럽게 연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농림수산물식품부 지정 귀농교육총괄기관인 천안연암대학 귀농

지원센터(www.uiturn.com)에서 정부지원 귀농귀촌교육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각 도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도 교육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끝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귀농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중앙 정부보다 실제 귀농인이 살아가야할 지자체의 보다 실제적인 귀농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는 귀농에 대한 비전이 새롭게 가져야 한다. ‘인구가 부족하니 아무나 오라’는 식으로 귀농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리더를 영입한다는 관점에서 귀농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듯 경쟁력 있는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기대어 단순히 귀농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지자체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서산시의 경우라면 마늘, 생강 등 양념채소 분야 밭작물에 경쟁력이 있으니 귀농자에게 기존 작목반을 멘토로 붙여주어 생산기술 전수는 물론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정책이라든지, 서해안을 끼고 있는 여러 체험마을의 사무장을 귀농자로 채용하여 운영케 한다든지 하는 차별화된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귀농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중요한 원동력이다. 아버지 세대가 등을 지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갔으나, 이제 젊고 유능한 귀농자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 희망의 씨앗을 뿌려 주기를 기대한다.



# 서산 현대문학의 요람 - 동인지

서산의 현대문학은 글쓰는 일을 좋아하는 동인지 활동에서 시작한다. 오랜 동인 활동이 오늘날 서산 현대문학의 토양이 되고 있다. 서산지역 동인활동의 시초를 소개하고자 한다.

## ■ 수라장 (修羅場)

서산 동인지의 씨앗은 1947년 「수라장」이 나오면서부터 뿌려졌다. 이 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 문학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동인으로는 이생진, 이원표, 김용만, 이진영, 이은창, 안영진 등이었다. 서산농림학교 재학생들 중심의 교내문예지 형식이었지만, 당시 서산지역 문학의 불모를 한탄하고 일어난 젊은이들의 발상이었다. 이생진이 직접 등사판을 메고 다니며 자택에서 필경 등사 제본한 것이다.

당시 6년제 서산농림학교 교사이었던 한담은 한시, 조재억은 국문학을 가르쳤는데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재억은 국문학을 가르쳤는데 국문학자이며 시조시인으로 이생진을 비롯한 현대 서산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낌없는 편달을 하였다.

## ■ 문 (門)

이생진과 윤덕구 두사람 동인지로 1963년에 1집이 나와 5집까지 계속 되었다. 1집의 표지는 추상적인 컬러 그림에 국판크기(가로14X세로20)이고 총 12P 필경인쇄로 3부 한정출판되었다.

## ■ 황인부락 (黃人部落)

1964년 3월 창간 1집이 나왔다. 윤덕구, 송중학, 이근식, 김원태, 노원진, 강현서, 김영삼, 권순하 등이 서산 문학 동호인으로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황인부락」서언에서, 『우리는 백인처럼 사열대 위에 서서 행군하는 역사의 온갖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오만을 갖지 못했다. 우리는 또한 흑인처럼 역사의 뒷골목 태양이 작열하는 후도(後途)에서 광녀같은 짜즈마저 소유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제 심혈을 기울여 우리들만의 안주지를 찾아야 하겠다. 우리는 이 이상 방황할 수 없다. 피곤한자들끼리 모여 앉아 문학이라는 숨결로 향수 짙은 대화를 나누어 보자.』 고 도도하게 기치를 내 걸었다.

창간호에서 시부분에는 서령중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윤덕구가 〈하오의 구도〉, 〈자운영〉, 〈어린중〉을 발표했고, 강현서는 〈낙엽〉, 김원태는〈고샅〉, 송중학은 〈독백〉을 실었다. 노원진은 서산도립병원에 근무하면서 〈정념의 회장〉, 〈나무의 감상〉을 게재 하였다.

수상에는 이근식이 〈상〉, 권순하 〈흙은 꽃을 피운다〉, 강현서 〈산으로 간 H에게〉를 그리고 김영삼은

창작이라는 행복으로 단편소설 〈어느날의 환상〉을 게재하였다.

창간호(가로 16.5X세로22, 20P)는 국한문 혼용이다. 윤덕구의 필경으로 종이는 갱지. 겉표지는 도화지에 천연색 추상화로 띠를 둘렀다. 19부 한정판을 내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아는 분에게 증정하였다. 또한 창간호는 중도일보에 전문이 소개되었고 충남문학평론에서 논평되기도 하여 평론문(1966)이 나왔다.

1965년에는 조석호, 이생진, 김영만, 노선관, 이은우 등이 입회하였다. 그리고 2집이 나왔으며 1966년에는 3집이 나왔다. 3집(가로20-세로24 52P)의 필진은 〈황인의 변〉의 조석호, 〈자기정전〉의 이생진, 〈초원의 연인〉의 강현서, 〈갈고혼 봄〉의 김원태, 〈화심초〉·〈다방에서〉·〈낮 달〉의 김영만, 〈봄을 위한 산조〉의 노선관, 〈대춘부〉·〈성좌〉·〈유월〉의 송종학, 〈감상〉·〈표정〉의 윤덕구, 수필류는 〈C에게 보내는 글〉 이은우, 〈가난한 사람들의 선물〉의 김영삼, 단편소설로는 권순하의 〈철희와 심검쟁이 옛장수〉가 실렸다.

그 후 이근식, 노원진, 김원태, 강현서 등 여러사람이 외부로 전보되어 더 이상 발간하지 못했다.

### ■ 흠빛문학

「흠빛문학」은 1981년 5월부터 지요하, 최주연, 이원국씨 등이 수차례 갈기회와 준비를 거쳐 1981년 8월 8일 창립을 보았다.

창립당시 회원은 이원국, 지요하, 최주연, 김영규, 김향순, 심영섭, 신상호, 이만규, 이선자, 조선란, 한충훤, 방동엽, 명재성 등으로 초대회장에는 아동문학가이며 수필가인 최주연이 피선되었다.

1983년1월「흠빛문학」제 1집을 출간하고 꾸준한 활동으로 1997년 상반기 까지 23집을 출간했다.

원래는 태안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인들이었으나 1985년부터는 서산 거주자도 회원으로 받아들여 회원이 불어나 현재는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흠빛문학회원 중 등단한 문인도 20여명 이르고 있어 지방문학회로서는 자리가 잡혀 있으며 회지 발간도 꾸준하여 전국에서 우수한 지방문학지가 되었다. 「흠빛문학」은 중앙의 문학지와 같은 모양으로 제 7집은 360P에 이르고 있다.

### ■ 진여문학

「진여문학」은 여울문학이라고도 하는데 1985년 태안 만리포교회 남궁 찬 목사가 창립하였다. 초기 회원 10여명이 활동했으나 「진여문학」 1집을 내고는 해체되었다.

### ■ 서산문학

「서산문학」은 흠빛문학회 회원이던 서산지역 거주자들이 서산 지방의 문학발전에 밑씨가 되자는 목적 아래 '서산문학회' 라는 단체를 새로 만들고, 1991년에 회원들의 글을 모아 「서산문학」 창간호가 나왔다. 초대회장이 당시 부석중학교 교장이며 시인인 김순일씨가 피선되었고 2대회장에는 서산시 교육장인 유상동씨가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과 시간이 허락하는 회원들의 소모임이 자주 있다. 소모임 회원들은 각자의 작품을 돌려 감상하고 느낌을 나누는 일이 매주 이루어 지고 있다.

출처 : 서산시지

## (宗學園)

논산시 노성면에 참교육의 터 종학원(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152호)이 있다. 현재 <종학원>은 1999년부터 4년여에 걸친 복원 공사를 하면서 종학당, 백록당, 정수루, 보인당 4개동과 정원을 조성한 후 <종학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중 서당인 종학당은 조선시대 대과 급제자만 42명을 배출한 곳이다.

인조 21년(1643년) 사계 김장생 선생의 제자인 동토 윤순거(1596-1668)선생은 종학당을 설립하여 병사사저에서 문중의 자여질(子與姪)들을 모아 가르치며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음해 현재의 위치에 정수루(淨水樓)와 백록당(白鹿堂)을 지어 강학의 전당으로 삼았다. 종제들과 종약(宗約)을 제정 하는 등 엄격하게 지켜야 할 규범을 세워 체계적인 교육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종학원>은 이산(尼山)자락에 위치하여 주위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 쌓여있고, 전방 100m 앞에는 병사리 저수지가 펼쳐져 있어 경관이 수려하다. 강태공들이 한가로이 낚시를 하는 저수지 너머에는 '병사' (丙舍)가 있다. 이곳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며, 그 바로 뒷산에는 파평윤씨 산소가 있다.

이렇게 <종학원>은 500평정도의 부지에 주변의 소나무 숲이 주는 아늑함과 펼쳐진 전경은 정신을 맑게 해주었을 것이고, 조용한 산사(山寺)와 같은 분위기는 책을 놓지 않게 했을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명맥은 1910년 한일합방(경술국치)으로 일제의 신교육이 보급되면서 단절되게 된다. 인간중심 교육의 목적이라는 종학당에서 베어 나오는 묵은 깊이의 향기가 진정한 참교육의 의미를 일러 준다.



논산문화원장  
박 응 진



## (論山明齋故宅)

종학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논산명재고택(중요민속자료 제90호)이 있다. 명재 윤증 선생(1629~1714)의 연고가 닿은 이 고택은 조선 효종 때 지어 진 전통 기와집으로 노성산 옥녀탄 금형 명당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명재 선생의 어머니 공주이씨 정려각이 있다. 고택 왼쪽에는 노성향교가 우측에는 궐리사(關里祠)가 위치하고 있다.

고택은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 일대의 사대부가는 물론 인근 동춘당 등 당시 양반가옥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청빈한 주택이다. 사랑채는 바깥세상과 공개되고, 당당한 형태를 갖추었지만 안채는 완벽히 폐쇄되고 무표정하게 느껴진다. 사랑채 앞에는 넓은 마당을 두고 커다란 연못을 조성하고 그 사이에는 우물을 만들었고, 배롱나무와 벗나무가 심어져 사철 운치를 더한다. 고택의 특징은 안채와 행랑채가 ㄷ자형을 이루며 대청, 누마루 등의 배치가 감소하면서 품위가 있다. 사랑채에는 하나의 문이 미닫이와 여닫이가 모두 가능한 독특한 구조의 문이 있고, 손님이 오면 방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안채를 들어가기 전에 내외벽은 안채를 볼 수 없는 차단벽이 있어 하단 공간으로 신발을 보고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아직 이곳은 명재 윤증 선생의 종손이 거주하며 고택을 잘 관리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고즈넉한 고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택은 300년이 넘도록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교동 간장, 된장이 유명하기도 하다.

명재 윤증 선생은 조선시대 유학자로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등 고명한 학자에게 수학하였으나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숙종은 우의정 임명장을 전하니 수차례 상소를 올려 끝내 사양하고, 고향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 백의정승으로 불리었다. 훗날 엄히 당부하기를 “내가 죽은 후 선비의 예절로 장사 지내고 명정에는 내 관직을 쓰지 말고 작은 선비라 쓰라”고 하였고, 인근 산소 작은 묘비에 새겨져 있다.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논산시 노성면 일대 유적지를 찾아 고택에서 하룻밤 머물며 자녀들과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 경기도 국악당

경기도 국악당은 한국 전통예술을 활성화하고 첨단 시설과 앞서가는 문화 활동으로 전문적인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전통예술을 널리 보급하여 국악의 저변 확대를 이루고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하며, 도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경기도 국악당은 경기도가 국악 활동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하고자 1999년 11월에 국악당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6월 공사 착공을 하여 2년 만에 준공을 하였다. 당시 새롭게 출범한 법인조직인 '경기도 문화의전당' 소속 기관으로 2004년 7월 13일에 개관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상설 국악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국악당의 시설 규모는 대지 면적 35,855㎡, 건축 연면적 5,683㎡이며,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5,161㎡의 면적을 가진 공연장은 좌석이 470석이며, 부대 시설로는 분장실, 합주실, 강습실, 악기보관실, 의상보관실, 휴게실(식당), 스넥바, 어린이 놀이방 등이 있다.

공연 분야는 '1년 내내 쉬지 않는 공연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4년 7월 14일부터 20일간 진행된 개관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공연을 지속해 왔다.

2005년에는 상설 국악 전문 공연장에 맞게 일반인을 위한 '토요 상설 국악 공연',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한국의 미-웨딩'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상설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2006년 한 해 344회의 공연에 외국인 25,000여 명을 포함하여 49,000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특히 2006년에는 경기도립국악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악 뮤지컬 「한네의 승천」을 30년 만에 새롭게 무대에 올려 국악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하였다. 김영동의 창작곡으로 구현된 '김영동의 단군신화', '김영동의 소리 여행', '김영동의 동요', '김영동의 효 음악회' 등을 통해서도 관현악에서 동요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곡으로 관객과 만남으로써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 작업도 시도하였다.

2007년에는 경기도의 소리를 테마로 한 창작 국악 작품을 위촉하여 연주한 '초연의 밤'을 비롯, '국악 관현악 축제'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정기 연주회와 작품 창작을 통하여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 계승과 함께 연간 30여 회에 이르는 지방순회 연주 활동으로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5년 「삼년고개」에 이어 전래 동화를 소재로 인형극에 국악을 접목한 2006년 어린이 국악 인형극 「부리부리 흑부리」와 2007년 어린이 국악 인형극 「방귀대장 뜰배」를 제작하여 어린이들을 한국적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2004년 9월부터 약 3,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는 '전통예술 교육 강좌'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원 국악 연수'를 비롯하여 가족 체험 프로그램인 '엄마 아빠랑 전통 문화 나들이' 단체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인 '딩더쿵! 나도 국악인'과 '국악CA' 등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 과정의 전통 예술 교육 강좌는 2006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779명이 수강하였다.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강좌와 소외층을 위한 무료 강좌도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운영 기관으로 지정받아 진행되는 교원 국악 연수는 경기도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유치부 70명, 초등부 80명의 연수생들을 배출하였다.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진행되는 '엄마 아빠랑 전통 문화 나들이'에 천여 명이 넘는 가족 단위 관객들이 참여하여 하고 있다.

단체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은 유치부·초·중·고교 및 일반인,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의 수준별 특성에 맞춘 '딩더쿵! 나도 국악인'과 '국악특활교실'가 있다.

특히 2004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 말까지 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국악특활 교실1은 유치부·초·중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 체험 대체 프로그램으로서 2006년 한 해의 결과를 보면 18회에 걸쳐 3,769명이 참여하였다. 국악 특활 교실2는 연중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양질의 국악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전문적인 국악 강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국악당 운영 본부는 공연기획팀, 문화교육팀의 2개 팀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운영본부장은 최갑선이 맡고 있다.

문화교육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어린이·성인 교육 강좌, 교원 연수, 가족 및 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한다. 공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용객들의 문화 욕구가 다양해지고 깊이 있는 체험에 대한 요구가 많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시설현황\_ 지상 1층 : 공연장, 로비, 고객센터(매표소), 강습실1, 2

운영주체 :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2번지 경기도국악당

객 석 수 : 420석 (장애인용 휠체어석 4석 포함)

시설현황 : 공연장, 로비, 고객센터(매표소), 강습실1, 2

대표전화 : 031-289-6435

팩 스 : 031-289-6428



김 명 화

“애들아, 어서 일어나! 문화원 가자...”

안 떠지는 눈을 비비며 아이 셋과 남편을 앞장세워 이른 아침 문화원으로 향했다.

막내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우리가족은 올해 첫나들이를 서산문화원의 전통문화나들이로 시작했다. 여러 가족들과 문화원장님의 배움을 받으며 버스가 향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국악 공연 전문시설인 <국악당>이었다.

서산문화원에서 출발하여 차를 타고 두 시간쯤 달리자 국악당이 보였다. 전통예술을 널리 보급하고 국악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1년 내내 쉬지 않는 공연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방문한 일요일에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엄마 아빠랑 전통문화 나들이’ 이가 진행되어 문화원 가족 모두 참여하였다.

국악당 마당에는 투호, 널뛰기, 팽이 등의 전통놀이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제기도 차고 널도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참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별주부와 떠나는 소리여행”이라는 공연 시간이 되었다. 별주부전을 국악과 접목하여 우리의 소리찾기, 삼현삼죽의 유래, 궁중음악, 경기 민요, 윷다리 풍물 등을 쉽게 풀어 극으로 표현한 공연이었다. 같이 온 서산문화원 일행 중에 몇 명은 무대에 올라가 역할극에 참여하여 대사도 읽고 단소 선물도 받자 아이들은 부러운 눈치다. 곱게 한복을 입은 선생님과 함께 국악동요도 배워 불러보고 사회자의 해설로 국악기 설명도 듣고 소리체험도 하며 연주까지 들으니 차분해지면서 은은한 차 한 잔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그렇게 풍물패의 신나는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다보니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근처 식당에서 도란도란 모여 앉아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오다 보니 국악당 바로 옆에 용인민속촌이 보였고 다음을 기약하며 국악당의 다음 장소로 이동

하였다.

오후 프로그램은 가족단위 전통 문화체험으로 장구 배우기와 탈, 제기만들기 등이 이어졌다. 장구를 하나씩 앞에 두고 장구의 여러 장단을 익히며 궁채를 흔드는데 그동안 쌓인 게 많은지 나와 같은 부모들이 더 신이 났다. 또 가족이 둘러앉아 탈 모형에 아이클레이를 색색이 꾸며가면서 나만의 탈을 만들고 만든 작품을 기념하는 가족사진도 찍었다. 엽전을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제기도 만들기도 했다. 여러 가족이 모여 제기 차기 시합도 하고 아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선물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국악당을 뒤로하고 다시 버스를 올라 인근에 위치한 백남준 아트센터에 도착하였다. 백남준하면 난해하다는 막연한 생각과 비디오아트의 창시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전시장의 작품을 보면서 잘은 모르지만 그는 현대예술의 신화적 인물이고 세계적인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위대한 인물이란 사실이 다시 한 번 느껴졌다. 그냥 감상만 했다면 잘 몰랐을텐데 문화원 선생님이 직접 섭외하신 도슨트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그의 작품도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백남준 아트센터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입구에서부터 TV브라운관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 신기한 듯 물어보는 아이 앞에서 도슨트 분은 진땀을 흘렸다. 백남준은 지금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그의 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관람을 마치고 서산으로 향하는 차안에서는 빠듯한 일정을 마친 가족들이 잠이 든 모습이다. 하지만 얼굴에는 뿌듯함과 옅은 미소가 가득하다.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하면서 돈독한 가족애도 느끼고 아이들이 친숙하게 국악을 맛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도 아이들은 음악소리에서 해금이나 가야금 소리를 찾아내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전통문화가 앞으로도 널리 보급되고 보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 문화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 법정 스님을 기리며 ...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한 법정(法頂)스님(1932~2010)이 불길 속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길을 떠났다.

스님은 6.25전쟁 민족사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고 결국 24살에 속세를 떠났다.

살아 생전에 많은 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평생을 고독한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보여 준 생활 철학은 종교의 벽을 넘어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삶은 무엇이고 또 죽음은 무엇인가?

삶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도 하고 “한 조각 뜯 구름”이라고도 한다. 마더 테레사 수녀(1910~1997)는 “인생은 낮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과 같다.”고 했다.

무소유(無所有) 정신을 설교한 그는 “내가 어떻게 가는지 봐라” 하면서 간소한 장례를 부탁하며 그가 생전에 한 말이다.

그의 당부대로 수의(壽衣)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입던 옷 그대로 관(棺)도 없이 평상 위에 가사를 덮은채 다비식(茶毘式: 화장의식)을 치렀다. “번거롭고 부질 없으며 많은 사람에게 수고만 끼치는 장례 의식도 말라”는 그의 유언대로였다.

법정스님이 1971년 39세에 쓴 유서는 이렇다. “장례식이나 제사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서 거창한 장례를 치루고 있다.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에 내 이름으로 향해진다면 나를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가 남긴 유언은 이렇다.

“내 장례식을 하지 마라. 관도 짜지 말고 평소에 입던 무명 옷을 입혀라. 내가 살던 강원도 오두막에 대나무로 만든 평상이 있다. 그 위에 내 몸을 올리고 다비 해라. 그리고 재는 평소 가꾸던 오두막 뜰의

꽃밭에다 뿌려라.” 그의 뜻대로 그 혼한 조화도 조사도 만장도 장례식도 없었다.

화려한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사람들의 허세 부리기가 아니던가. 그는 비우고 또 비운 무소유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까지 무소유를 실천한 것이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주머니도 없는 수의 하나입고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글을 그럴듯하게 쓰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행동이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법정이 돋보이는 것은 그의 삶도 죽음도 그의 말과 글과 같았기 때문이다.

버리고 또 버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가 떠난 한국 사회는 소유욕으로 어지럽고 불통(不通)으로 신음한다. 학력, 돈, 아파트, 계급으로 질주하고 양극화, 교육격차, 세종시로 막혀있다. 교회는 날로 대형화하고 사찰엔 여전히 잡음이 많다. 법정의 무소유와 소통이 그래서 더욱 그리운지 모르겠다.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그만큼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많다는 뜻이다.

한번 뿐인 인생 어차피 갈 인생-인간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는가?

소유욕으로 더러운게 사바세계(娑世界)이다. 많이 가지려고 아귀 다툼을 벌이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

스님을 화장하면 사리(舍利)가 나왔다고 요란을 떠다. 몸을 가리키는 산스크리트어 사리라(sharira)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리는 인간의 신체 내부에 있던 물질이 화장 때의 열로 인해 변형된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법정은 절대로 사리를 찾지 말고 탐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인의 관심을 멀리 하고 자 함이 아니었을까.

법정은 조교적 화합을 부르짖었고 타종교인들과도 허물없이 지내 온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인이었고 종교는 “친절함”이라고도 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산 “무소유”의 삶,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다간 우리의 사표라고 하고 싶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이가 아니라 값어치가 아닐까 느껴진다.

2010년 4월 1일

운산(雲山) 윤병석(尹炳錫)



문

화

원

소

식

## ■ 신나는 전통문화체험

향토사료관을 관람하고 재미있는 전통문화체험도 즐길자!

- 일 시 : 2010년 5월 8일(토) 10:00 ~ 13:00
  - 장 소 : 서산문화원
  - 대 상 : 학생 및 서산시민 누구나
  - 프로그램
    - 문화공연 - 판굿, 박첨지놀이
    - 체험행사 - 도자기만들기, 고서만들기, 단청만들기, 양초만들기, 천연염색, 죽공예와 짚풀공예 체험, 제기만들기, 탈만들기, 전통예절 배우기 등
- 향토사료관 관람



## ■ 성년례

제38회 성년의 날 맞이하여 20세 성인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15일(토) 15:00
- 장 소 : 중앙호수공원
- 대 상 : 육군 제1789부대 1대대 장병(1990년생)

## ■ 제12회 청소년문학제 시상식

- 일 시 : 2010년 5월 20일(목) 16:00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 대 상 : 청소년문학제 수상자 69명 및 지도교사상 4명

## ■ 전통음식체험

인스턴트 음식은 이제 그만! 아이와 함께 만드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중
- 장 소 : 서산문화원
  - ※ 자세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서산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 서산문화탐방 참여자 모집

서산의 국가지정 문화재 탐방을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서산문화탐방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답 사 일 : 5월 19일(수) 오전 9시 50분
  - 답사장소 :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명종대왕태실, 해미읍성, 정순왕후생가 일대
  - 참여대상 : 성인 남, 녀 (정원 40명)
  - 참 가 비 : 무료
  - 접수일시  
5월 13일 (목) - 서산문화원 회원 (2009~2010년 회비납입)  
5월 14일 (금) - 일반시민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비회원은 정회원 접수 후 여석에 한해 접수)
  - 접 수 처 : 사무국 (669-5050)
- ※ 서산문화원 회원 참여 신청자가 정원초과시 비회원에게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충남도지사배민속대제전 출전선수 모집

제20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행사에 참여할 출전선수를 모집합니다.  
서산시의 대표선수로 활약할 서산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회명칭 : 제20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 대회방법 : 충남 16개 시·군 대항전(토너먼트)
  - 일 시 : 2010년 6월 17일(목) 09:30부터
  - 장 소 : 천안삼거리 공원
  - 경기종목 : 씨름, 줄다리기, 줄넘기, 힘자랑, 제기차기, 널뛰기
  - 모집종목 : 6개 경기종목 중 5종(줄다리기, 줄넘기, 힘자랑, 제기차기, 널뛰기)
- ※ 자세한 출전기준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서산문화원 669-5050)  
※ 일정이 5월 14일에서 6월 1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김종운 (서산시 인지면) 50,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이간난 (서산시 음암면) 100,000원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김교탁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 윤원형 (서산시 해미면) 2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 박정미 (서산시 죽성동) 20,000원  |
| • 박창배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김경아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 김덕환 (서산시 성연면) 2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이관주 (서울시 강남구) 100,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김시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이은경 (서울시 강남구) 100,000원 |
| • 정명재 (서산시 해미면) 2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이정례 (서산시 동문동) 140,000원   | • 박상익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 • 안무승 (대전시 서구 둔산동) 20,000원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30,000원  |
| • 류성곤 (서울시 은평구) 100,000원   | • 모경희 300,000원          |
| • 안상진 (서산시 성연면) 30,000원    |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값지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